

# 단편 영화 - 회색 날개 (가제)

김진설

## 집 화장실 안

/수족관 안에 퍼져있는 물감이 붓으로 빨려 들어간다. 수족관 물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남아있던 물감이 모두 붓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붓은 빠르게 물 위로 올라간다 /화면전환/ 동시에 선우는 세면대에서 빠진 머리를 빠르게 들어올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몰아 쉰다. 붓을 물에 담크고, 물감이 퍼지는 걸 찍은 뒤 REWIND

## 지하철 안

지하철을 기다리는 선우. (풀 샷 한가운데) 지하철이 요란한 소리로 빠르게 들어온다.

## 편입학원 안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선우. 학원생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선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그림에 집중한다. 낯선 분위기가 어색한 선우. 자리를 찾아 두리번 거린다.

원장 : (능글 맞게) 저 쪽으로 앉아요~ (강사를 바라보며) 쌤, 새로 오신 분 안내 좀 해드려~

선우. 두리번 거리며, 자리를 찾아 앉고, 가방과 짐을 푼다.

쭈뼛대며 앉아 있는 선우에게 강사가 다가온다.

강사 : 어제 상담 하고, 오늘 오신 거죠? 물감이랑 준비물은 가져왔어요?

선우 : 아..! 네..!! (가방을 뒤적이다.)

강사 : 그럼 일단 이거 한 번 그려볼래요?

선우 : (머쓱해 웃으며) 근데.. 제가 그림을 안 그려봐서.. 뭐부터 해야 할지...

강사 : 괜찮아요. 일단, 물통에 물부터 받고, 이거(그림을 건내며) 스케치만 하고 있을래요?

원장 : 경희쌤. 상담 오신 것 같은데, 좀 봐줘요~

강사 : 네~ 갈게요~ 하고 있으면 제가 다시 와서 봐줄게요.

선우 : 아.. 네!..

물통에 물을 받는 선우. 멍하니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그 옆 개수대에서 창태가 물을 받고있다. 힐끗 바라보는 선우. 창태는 아무 표정을 짓고 있지 않다. 물을 다 받고, 자리로 돌아가는 선우.

창태 포커스 아웃.

## PC방(현재)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선우. 게임소리가 피시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창 집중하는 도중, 마우스 옆에 놓여진 선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선우 : 아!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 (휴대폰을 바라보는 선우. 흠칫 놀란다.)

친구1 : (멈칫하는 선우를 바라보며) 누구데? 여친이냐?

선우 : 아니.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군데.

친구1 : 뭐. 편입학원?

선우 : 어.

친구1 : 이 시간에 연락을 해?

친구2 : 야야!! 뭐해!! 뒤!! 뒤!!

휴대폰을 빠르게 내려놓는 선우.

휴대폰 화면 속 시간이 새벽 2시가 됨을 알려준다. (날짜는 16년 2월 초)

선우 : 아! 저 시발놈들! 언제 절로 갔어!

내려놓은 휴대폰은 계속 울린다.

## 편입학원 안(과거)

책상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 선우. 처음 그려보는 그림이 낯선 듯, 고개를 가우뚱한다. 학원 한 칸에는 학생들이 모여, 방금 벽에 붙인 시험작들을 보며 강평을 듣고 있다.

강사 : 너네 제정신이니? (학생 한 명을 바라보며) 정희야! 어떻게 할거야~ 현아! 대학 안갈거야?? 점심 먹고, 시험 다시 볼 테니까 밀도 확실히 올리고, 미완성 하는 사람 없도록 해. 알겠어??

학생들 : (낮은 목소리로 다함께) 네..

학생들은 오래된 툽니바퀴처럼 힘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강사 : 문형아. 처음 온 친구 데리고, 점심 같이 먹어.

문형 : 네. (선우에게 다가가) 가시죠?

선우 : (어렴풋한 미소로) 아.. 네!..

선우는 약간 어리둥절 하면서, 학원에 들어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점으로 향하는 남자 무리 3명. 그 뒤로 선우가 뒤따라간다.

## 학원 근처 김밥전문점

문형 : 몇 살이에요?

선우 : 아! 저는 스물 다섯이요.

문형 : 아~ 동갑이네. 말 놓을게.

선우 : 어?.. 어. 그래.(해맑게 웃으며)

문형 : (옆에 두 사람을 번갈아 가르키며) 이 쪽은 한 살 형이고, 얘는 우리랑 동갑.

선우 : 으응~ 너네는 학원 다니지 얼마나 됐어?

문형 : 3월 부터니까 5개월 정도 됐지. 너는 그림 처음 배우는 거라며?

선우 : (당황하며) 어?..어. 어떻게 알았어?

문형 : (옆을 흘겨보며) 뭐 그냥 들었어~ 여기가 좀 소문이 빠르거든. 영어는 좀 해?

선우 : (망설이다 이내 웃으며) 아.. 혼자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점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토익 보려고!..

문형 : (옆을 흘겨 보며, 희미하게 웃는다.) 아~ 아직 점수도 없어?

선우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온다.

식당 한쪽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창태. 선우를 힐끗 바라본다.

## 학원 근처 김밥전문점 앞

문형 : 어? 비오네.

문형과 친구들이 우산을 펼쳐 식당을 떠나고, 뒤 따라 우산을 펼치던 선우. 식당 앞 한쪽에서 멍하니 서있는 창태를 발견한다.

선우 :..우산 없어요?  
창태 :..

함께 우산을 쓰고 학원에 도착하자, 창태는 고개를 까딱이고, 학원으로 들어간다. 선우는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산을 접는다.

## 학원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힘겹게 붓을 따라가는 눈동자들. 아까 강평 받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붓으로 달음박질을 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을 살피는 선우. 표정이 밝지 않은 않다./

/학원에서 나가는 학생들.

선우 : 안녕히 계세요~

선우도 짐을 싸서 나가며, 학원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한다.

## 지하철

지하철을 기다리는 선우. 문득, 옆을 바라보니, 멀리에 창태가 서있다. 창태에게 다가가는 선우.

선우 : 이쪽 방향으로 가시나 봐요?

선우가 말을 건네자 흠칫 놀라는 창태.

창태 : (무표정한 얼굴로) .. 네.

정적-

## 지하철 안

선우와 창태는 나란히 서서 지하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침묵을 깨며, 선우가 말을 꺼낸다.

선우 : 집이 어디예요?

창태 : (잠시 망설이다가)... 00이요.

선우 : (조금은 능청스럽게) 으음~ 어디 까지는 같이 가겠네요! 저는 ㅁㅁ 살아요.

창태 : ...아..네..

(어색한 기운이 맴돈다.)

선우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창태 : ..스물 다섯이요.

선우 : 오! 나랑 동갑이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창태 : ...그..ㄹ

선우 : (창 밖을 보고, 한숨쉬며) 하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무슨 감옥도 아니고.. 넌 안그래 ?

창태 : .....좁..답드..ㅏ..ㅁ..

선우 : 으 숨막혀! 시험 볼 때는 무슨 기계들 갈애. 다들!

창태 : (피식 웃으며)... 아무래도 나이들도 있고.. 뒤쳐지지 않으려고, 좀 치열하지..

선우 : (고개를 빠르게 절레절레 흔들며) 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무서워서 그림 그리겠냐.

창태 : (선우를 힐끗 보고 다시 피식 웃는다.)

선우 : (살짝 놀라며)어? 벌써 내려야 되네. (창태를 바라보며) 야. 아무튼 내일 보자. 먼저 갈게!! 아!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창태 : ...오창태..

선우 : 그래. 창태야 내일 봐!

창태 : ...

선우가 내리고, 창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끼고, 동시에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



(열차 소리, 어둡속 열차의 속도감 화면 2초 지속.)

## 학원 (점심 시간)

학원 점심시간, 문형과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나갈 준비를 한다. 선우도 같이 나갈 태세를 하며 책상을 정리하지만, 선우를 무시한 채, 차마 부를 틈도 없이 무리는 나가버린다. 잠시 멈칫 하던 선우는 학원 한 켠에 조용히 책상만 바라보고 있는 창태를 가웃 보고는 창태에게 다가간다. 창태의 옆 책상에 놓여 있는 그림과 물감 등을 들어 보이며,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는 선우.

힐끗 눈치를 보고는 다시 책을 보는 창태

선우 : 뭐해~?

창태 : 아.. 영어단어 잠깐 보고있어.

선우 : 밥 안 먹어?

서로를 바라보는 선우와 창태.

## 편의점 안

라면에 물을 받고, 그 위에 삼각김밥을 올려서 나오는 선우. 창태가 앉아있는 테라스 자리에 옆 테이블 의자를 끌어다 앉는다.

## 편의점 테라스

선우 : 나 때문에 억지로 먹는 건 아니지?

창태 : ...

선우 : 예효. 이대로 가다가 시험이나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창태 : ...

선우 : (눈썹 한쪽을 치켜 들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너 되게 말이 없구나. (기지개를 켜며) 아휴~ 시발. 하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그림만 그리는데, 안 느는 것도 이상하겠다. (로봇 처럼 그림그리는 시늉을 한다.) 위잉~치익! 위잉~치익!

창태 : 폼..

선우 : 어? 웃네? 위잉~ 치익! 위잉~치익! 아니! 우리 학원에 아직 개조되지 않은 인간이 존재한다니! 너 오늘 잘 걸렸다! (손끝으로 창태의 몸을 찌른다.) 의잉~ 치익!

창태 : ㅋㅋ! 야.. 하지마~ ㅋㅋ...

장난을 치다 선우 뒤쪽을 쳐다보고는 표정이 굳어지는 창태. 아무 일 없던 듯이 라면을 휘젓는다. 창태의 표정을 보고, 뭔가 뒤에 있음을 짐작하는 선우.

선우 : 응?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띠리리리! 어떤 로봇이 날 쳐다보나야!

뒤에 서 있는 학원원장과 눈이 마주치고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제자리로 돌렸을 때, 이미 창태가 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다.

선우 : (멋쩍게 웃으며) 하..하하.. 야! 같이가!!

## 학원 계단

선우와 창태. 장난치며 학원 계단을 올라간다.

선우 : 야. 먼저가. 화장실 좀 갔다 갈게.

창태 : 아. 알았어~

전화기를 꺼내는 선우. 인기척을 느낀다.

계단 틈 사이로 학원 여학생들이 보인다.

여학생 1 : 야. 경희 쌤. 남자들만 봐주는 것 같지 않냐?

여학생 2 : 그 쌤. 원래 남자 존나 밝히잖아. 맨날 남자애들한테 눈웃음 치고, 여우 같은 년

여학생 1 : 야. 너도 느꼈어? 대박.. 진짜 꼴보기 싫어.

여학생 3 : 야. 내 옆에 새로운 남자 좀 이상해.

여학생 1,2 : 왜? 왜?

여학생 2 : 계속 내 그림 슬쩍슬쩍 본다니까. 짜증나게.

여학생 3 : 와. 온지 얼마나 됐다고. 남의 그림 베끼는 거야? ㅋㅋ

여학생 2 : 후우..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어차피 밑에 깔아주러 온 거야.

여학생 1,2,3 : (까르르) 오후 시험 주제 뭐지? (다같이 웃으며, 학원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며 선우의 발 끝에 걸린 빛도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선우의 얼굴이 굳어진다.

멀리서 들리는 지하철 소리.

## 지하철

화면을 가로지르며 요란하게 출발하는 지하철. (반대방향)

창태와 선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멍하게 서 있는 선우에게 창태가 침묵을 깨고 말을 건다.

창태 : ... 무슨 일 있어?

선우 : 응? 아냐. 아~ 피곤하다~!

창태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본다.

멍하니 있던 선우가 말을 꺼낸다.

선우 : 창태야. 너는 편입하고 나면 뭐 할거냐?

창태 : 글썸..

잠시 뜬을 들이다가. 이내 결심 한 듯이 말을 꺼내는 창태.

창태 :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생활 하고 싶어.

선우 : (웃으면서) 뭐야. 재미없어. 세계여행을 가서 세계 각지에 여자들을 다 후리썰다던가. 어? 뭐 술을 2박3일 동안 마시고, 차로 전봇대를 박아 버리 썰다던가 그런거 뭐 없어? 막 획기적이고, 뽀타스틱한 그런거! 어? 없어?

창태 : (회미하게 웃으며)뭐야...췌.. 난 그냥.. 평범하게 학교 가서 친구 사귀고,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같이 과제도 하고. 잘 지내고 싶어.

선우 : 뭐야.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창태 어린이. 대학교 가면 뭐할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창태 : ... 그냥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서.

선우 : 췌. 좋아. 이 형님이 시험만 끝나면,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같이 해준다!

창태 : 뭐..? 정말...?

선우 : 그래 임마~ 내가 그림은 잘 못그려도, 노는 건 존나게 잘 놀거든? ㅋㅋ 그래. 클럽! 너 클럽도 안 가봤지? (창태의 볼을 꼬집으며) 아유~ 이  
썩맥 요거요거~.

창태 : (손을 뿌리치며) 아!아! 아파~! 야. 너 진짜 약속 지키는거다. 나랑 하루종일 노는거야.

선우 :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참나.. 알았어 짜식아~

창태 : .....선우야. 우리... 친구 맞지?

선우 : (어이없어 하며) 뭐? ㅋㅋㅋㅋ. 그래! 친구다 친구!! 둘도 없는 친구야! 됐냐?? 야 나간다!

창태 : 아! 응..

선우가 내리고, 눈치를 살피는 창태.

## 학원

(화면전환/막대기로 그림이 걸린 벽을 강하게 치는 원장.)

그림들 앞에 원장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고, 학생들은 그 앞에 앉아 원장을 올려 바라보고 있다. 노트를 들고 있는 메모를 하는 친구들. 팔짱을 끼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친구들. 모두들 진지하지만, 멍청한 얼굴로 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원장: ...정말 무서운거 알려줄까? 이 편입, 아니 미술입시라는게 말이야..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 너네가 시험을 보고 나면, 조교들이 바닥에 수 백장의 그림을 짹~악 깔아. 그리고는 막대기 하나 들고, 쪽 보는 거야. 쭈욱 보고 있는데, 어라, 전화가 오네? 핸드폰 보면서 두 세 걸음. 그렇게 3명은 떨어지고. 또 쭈욱~ 보다가 누가 '교수님~'하고 부르네? 뒤돌아서 대답하면서 한 두걸음 더 가면 또 2명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지나친 그림 중에는 합격을 할 만큼 잘 그린 그림도 있고, 주제도 틀려먹은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독하게! 붓 잡는 사람한테 합격도 따라가는 거야. 운도 붙을 놈한테 붙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원장, 선우를 쳐다본다.

학생들 : (힘없이) 네에~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 사이 여학생1이 강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여학생 1 : 쌤~ 이거 드세요!

강사 : 와. 뭐예요 이거? 고마워요~

여학생 1 : (밝게 웃으며) 쌤~ 요새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생각나서 샀어요!

강사 : 히이~ 고마워요 진짜~ 잘 먹을게요~

여학생 1 : 네~ 아 맞다 쌤. 좀 이따 저 손 그리는거 시범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강사 : 네. 그래요~ 저녁 먹고, 해요!

여학생 1 : 네~ 감사합니다!

새침하게 자리에 앉는 여학생1. 그 뒤로 앉아 있던 여학생 2,3이 여학생1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근 댄다. 여학생들이 포커스 아웃 되고, 화면 한쪽에 앉아있던 선우가 포커싱 된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화면전환/학생들,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많은 책상들과 그 가운데 선우가 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우.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살핀다. 입시학원 특유의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를 느낀다. (카메라 줌 아웃)

원장 : 김선우.

선우 : 네?

원장 : 너. 영어 점수 좀 높게 나왔더라?

선우 : (멋쩍게 웃으며) 아. 네..

원장 :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열심히 하고. 아 참. 특강 들을거지?

선우 : 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 :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흐음.. 선우야.

Audio Only

원장 : 너. 여기가 그냥 동네 놀이터 같지? 응? 그냥 적당히 그림 그리랄 때 그리고, 친구랑 희희낙락. 그렇게 대학 갈 것 같지? 다른 애들.. 하루종일 그림 그리고, 집에 가서 새벽까지 영어공부 하고, 일찍 일어나 학원 오가는 지하철에서 영어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는 애들 태반이야.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 아까워서 책 보면서 라면 먹는 애들이라고. 근데 무슨 생각? 남들 하는 것 만큼 해서 따라갈까 말까인 너가. 너~무 여유 부리는거 아니니? 니 옆에, 앞에, 뒤에. 다~ 경쟁자야. 그런 애들이 여기만 있을까? 전국에 학원이 몇 갠데.. 머리 잘 굴려.. 그렇게 물렁해서 독한 애들 이길 수 있겠어?

여학생 2 : 야! 경희쌤 시범 하신데.

여학생 3 : 뭐?

( Top View/Overlap ) 강사의 시범을 최대한 가까이서 보기위해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간다.

그 사이에 우물쭈물 서있던 선우는 학원생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학원생들로 뻥뻥하게 둘러쌓인 곳을 멀리서 바라본다. 다가가는 창태.

창태 : 괜찮아?

선우 : 응...

명한 표정으로 무리를 바라보는 선우. 그런 선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창태. 포커스가 뒤쪽에 서있던 원장에게 맞춰진다. 원장은 팔짱을 끼고, 선우와 창태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다. 선우, 원장의 얘기를 되내인다.

## 공원 벤치

( Top View/Overlap ) 공원에 모여 있는 비둘기 무리들. 모이를 먹기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든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한쪽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 떼를 발견한다. 비둘기들은 가지고 있는 날개가 무색하게, 열심히 다리를 총총거리며, 모이로 몰려든다. (비둘기를 보며, 입시학원생들을 떠올리는 선우.) 화면은 회색 비둘기로 가득 찬다. 그 때, 울리는 휴대폰. 화면에 창태의 이름이 떴었다. (구형 핸드폰)

## 학원

점심 시간에 학원에 들어서는 선우. 자리에 앉아 짐을 푼다. 몇몇 남아있던 학생들은 할짓 처다 보고는 도시락을 먹거나, 영어단어 책을 마저 본다.

자리에 앉자, 다가오는 창태.

창태 : 왜 이제와?

선우 : 아. 그냥.. (멋쩍게 웃는다.)

창태 : 전화는 왜 안받아? 무슨 일 있어?

선우 : 아니야. 그냥. 좀 아파서.

창태 : 어디가 아픈데?

선우 : ...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아 창태야. 나 좀 쉴게.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창태 : ....

시험을 치르기 전 선우를 바라보는 창태.

옆에 여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나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선우와 근처 자리에 여학생들, 함께 웃는다.

(장면 전환)

시험이 끝나고, 선우가 원장실에서 나온다. 문형에게 다가가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선우. 창태는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선우에게 다가간다.

창태 : 밥 먹으러 가자.

선우 : 아. 그래.

## 학원 밖 (저녁 먹으러 가는 길)

창태 : .... 사람들이랑 좀 친해졌나 봐?

선우 :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됐다는 듯이) 응? 아~ 그냥 뭐. 뭐 먹을까?

창태 : 무슨 얘기했어?

선우 : 응? 뭐가?

창태 : 아까.. 문형이랑...

선우 : 아~ 별 얘기 안했어~

창태 : (정색하며) 너 이상하다. 왜 말을 안해? 무슨 얘기했는데~

선우 : (바지에 손을 집어 넣고, 순수한 표정으로) 그냥.. 그냥 영어공부 같이 하자고.

창태 :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개랑? 갑자기 왜..? 너 개랑 별로 안 친하잖아?

선우 : 내 영어점수 얘기해주니까 같이 하자더라. 근데, 너 왜~이렇게 공격적이냐? 응? 같이할래 너도?

창태 : 아냐. 됐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창태. 멍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본다.

## 지하철

지하철을 기다리는 선우와 창태.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영 단어 책을 보고 있는 선우.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온다. /화면 전환/

## 지하철 안

창태 : 선우야.

선우 : 응?

창태 : ... 아니야. 주말 잘 보내라고.

선우 : (웃으며) 그래 너도. 갈게! 담주에 보자!

창태 : ... 저기. 선우야..!

빠른 걸음으로 나서는 선우에게 닿지 못한 창태의 부름은 공중으로 분산된다. 창태의 불안한 눈빛.

## 공원 앞(현재)

공원 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창태.

선우 : 창태야!

선우가 창태의 어깨를 치며 부른다.

창태 : 어, 선우야!

선우 : 뭘 그렇게 듣고 있냐?

창태 : (웃으며) 아..그냥..노래. 잘 지냈어?

선우 : 나야 뭐 잘지냈지. 야 들어가자 얼른. 배고프다.

가게로 들어가는 선우를 바라보는 창태.

선우 : 창태야. 많이 먹어.

창태 : 그래.. 근데,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너 핸드폰 잘 확인 안해?

선우 : 아... 그냥.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바쁘지 뭐~. 왜. 무슨 일 있어?

창태 : 아니.. 무슨 일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주 좀 봤으면 싶어서.

선우 : 만날 사람이 끝이 없다~ 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러 왔잖아. 임마. 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많이 먹어.

창태 : (희미하게 웃으며) ... 그래.

/

음식점에서 나오는 창태와 선우. 휴대폰을 보는 선우.

선우 : 야. 창태야. 이제 술술 가야겠다.

창태 : 무슨 소리야? 왜 벌써? 술도 한잔 하자. 술은 내가 살게.

선우 : 아. 미안. 곧 여자친구 만나기로 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창태 : 그래도 이렇게 가는게 어디있어? ....여자친구 여기로 오라고 하면 안돼?

선우 :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에이~ 임마. 안되지. 내가 금방 연락할게. 응? 나 빨리 가봐

야겠다. 갈게! 또 보자!

창태 : 야. 잠깐만..야.. 선우야..!

멀리 손을 흔들며 뛰어나는 선우.

아련하게 선우를 바라보는 창태.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음.

## 김밥천국

창태 : 문형이랑은 공부 잘했어?

선우 : 응? 아.. 응.

창태 : 몇시에 헤어졌어?

선우 : 음.. 글썸 한 10시쯤?

창태 : ..... 언제까지 같이 할건데?

선우 : (수저로 국밥을 휘저으며) ..... 글썸? 경원대 필기시험 전까지? 그래 봤자 2주도 안 남  
았잖아.

창태 : 이번주엔 나랑 할래?

선우 : (당황하며) 어? 음.. 글썸, 이미 문형이랑 하기로 해가지고.

창태 : ... 그냥. 이번주는 나랑 하면 안돼?

선우 : (다급하게 둘러대듯이) 음...그게.. 아! 이번주에 문형이랑 서로 단어 모르는거, 아니 그 문제를 내 가지고 교환도 하고, 서로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런거 하기로 했거든?? 그래 서 좀... 그리고 너는.. 영어보다 실기 위주로 준비하잖아?

창태 : 왜..? 나는 점수가 낮아서 같이 하기 싫어?

선우 : 아니, 그게 아니고.. 하아~ 새끼. 그래 같이하자. 하여튼 나 존나 좋아해요. (뭔가 생 각 난 듯 웃으며) 야. 창태야. 그거 아냐? 문형이랑 애들이 우리 사귀는 줄 알았덴다. 시발. 어이가 없어가지고. ㅋㅋ. 존나 웃기지 않냐. 킁킁.

창태 : ...뭐가 웃긴데?

선우 : (당황하며)어?... 아, 아니~ 애새끼들이 유치하잖아.

창태 : ....

선우 : (오히려 더 장난을 치며) 야. 그 반응은 뭐냐? 어? 이새끼~ 너 설마 나를 다르게 생각 하고 뭐 그런거냐 양?

창태 : ( 마음이 들킨 듯이, 괜히 더 아니라는 듯 눈을 치켜뜨며 ) 뭐가~

선우 : 어~어? 애 봐라. 이거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야 봐봐. 꼬추 봐봐. 이 새끼야.

선우. 장난 치듯 창태의 바지춤을 잡는다.

창태 : 아.. 하지마. 하지 말라고 씨발!!

큰 소리에 가게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주목된다. 주위를 살피는 선우.

선우 : ....야. 왜그래~ 임마. 장난이잖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창태.

선우 : 야! 오창태!!

창태, 대답 없이 가게를 나간다.

선우, 알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 학원

학원을 나서는 창태. 이어폰을 끼고, 빠르게 학원을 나간다.

창태가 워낙 빠르게 나가는 바람에 선우는 미처 창태를 부르지도 못했다.

## 지하철

홀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선우. 열차가 빠르게 진입한다.

화면이 열차로 인해 어둠에 휩싸인다.

## 한국대 캠퍼스 (현재)

수업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선우. 창태의 부재중 전화. 창태에게 전화를 건다.

## 창태 집

창태.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는다.

선우 : 어. 창태야. 웬일이야?

창태 : 아..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선우 : 뭐? 얼굴 본지 이틀 됐는데 무슨 소리야?

창태 : 아.. 아니, 그냥. 그냥 보고 싶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선우. 멀리 보이는 교수님을 발견한다.

선우 : ... 창태야. 내가 지금 불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교수님에게 달려가는 선우. 90도로 인사를 하고, 함께 학교로 들어간다.

## 학원 복도 -> 학원

어둠속 에서 핸드폰 화면에 불합격 공지가 보인다.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창태. 친구들과 웃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주고 받는 선우를 보고, 순간 걸음이 느려지는 창태. 애써 외면하고, 자리에 앉는다. 창태의 눈치를 살피는 선우.

## PC방 앞

PC방에서 나오는 선우와 친구들. 선우, 핸드폰을 열어 카톡을 확인 한다. 카톡과 부재중 전화가 수십통이 온 것을 확인한다.

/화면전환/ 창태 /

어둠 속에서 핸드폰의 불빛이 들어오고, 선우가 보낸 '나 지금 친구들 만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라는 내용에 카톡을 확인한다.

/화면 전환/ '그냥 보고 싶어서..' 창태의 답장.

선우 : 아 이 새끼. 뭐야 진짜..

친구 1 : 누군데?

선우 : ...

## 학원

창태 : 축하해.

선우 : ....그냥.. 운이 좋았어. 그리고 겨우 필기시험만 된 것 뿐이고.

창태 : 그래도. 넌 잘 될 거야.

선우 : 칫..... 미안해.

창태 : 뭐가?

선우 : 그냥 내가 실수 한 것 같아서.

창태 : 선우야. 나.. 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단지..너 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교차 편집1)



## 한강

답장이 없는 휴대폰을 바라보는 창태.  
서툴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콜록 댄다.

다시 올리는 휴대폰. 창태의 카톡. '나 죽어버린다..'  
선우 동공이 커진다. 전화를 거는 선우.

선우 : 너 어디야??

전화를 끊고 달려가는 선우.

친구들 : 야! 어디가! 야!! 김선우!!

## 한강

달려오는 선우. 숨을 몰아 쉬다가 저 멀리 창태를 발견한다.  
창태도 선우를 발견한다.

창태 : (웃으며) 어? 선우야!

선우 숨을 헐떡이며, 걸어온다.

창태 : 드디어 얼굴 보네!

선우 : (숨을 몰아쉬며) ..너.. 너.. 뭐야..

창태 : (능청스럽게 웃으며) 응? 아.. 너가 하도 연락이 안되길래. 장난 좀 쳐봤어.

선우 : .. 뭐?

### /화면 전환

빠른 걸음으로 뒤돌아가는 선우

창태도 서둘러 뒤따른다.

창태 : 야. 선우야. 잠깐만!

창태의 손을 뿌리치는 선우.

선우 : 놔.

창태 : 잠깐만! 애기좀 들어봐!

선우 : 아. 놓으라고!...

창태 : 아~ 선우야!

선우의 배를 끌어 안는 창태. 선우의 쌓인 분노가 터져, 선우 뒤 돌며 창태의 멱살을 잡고, 죽일 듯 제려보며 소리친다.

선우 : 이 씨발놈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멱살을 다시 꼭 잡으며) 어?? 뭐? 장난? 장난!!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뭐냐고. 게이야? 뭐야!!? 야..

내가, 아니, 내가 너한테 뭐, 뭘 어떻게 해줄까? 응?? 뭐 어찌라고!!!!..이 씨발.... 너 나한테 한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내가 너 죽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창태를 밀치며) 하아.. 이 정신병자 같은 새끼. 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병신아...

선우. 뒤돌아 간다.

창태 : 고마웠어.

선우, 걸음을 멈춘다.

창태 : (흐느끼며) 나한테 말 걸어 준 거 처음이었어. 너가.. 너는 아무 생각 없었는지 몰라도, 나한테 말 걸어주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준 너가.. 너무 소중한고, 고마운 친구였어....

선우 : ....

창태 :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었어. 미안해.. 그냥.. 단지.. 너 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교차 편집1) 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앞에서 가식 떨고, 사람 이용 할 줄만 아는 놈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넌.. 다른 거 맞지...? 응?

선우, 찌푸린 미간을 찡긋거리며, 눈물을 흘린다.

## 카페

카페에 앉아 있는 창태 (뒷모습 zoom in)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을 보고 있는 창태. 온통 선우를 찍은 사진들이다. 지하철. 학원. 등등..

창태의 입가의 미소(인서트)

멀리서 보이는 선우. 인사를 하며 다가 온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는 창태.

창태 : 왔어?

선우 : (웃으며) 많이 기다렸어? 미안.

창태 :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오늘 진짜 약속 지키는 거지?

선우 : (미소) 그래 임마~. 오늘 하고 싶은거 다 말해. 클럽도 가보고, 형이 오늘 하루 너한테 쓴다.

창태 :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울~ ㅋㅋ. 뭐 마시자. 내가 살게.

선우 : 그럼 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창태 : 그래. 좀만 기다려!

창태, 카운터로 걸어간다. 음료를 주문하는 창태. zoom in -> 창태의 주머니.

급하게 넣은 휴대폰의 이어폰이 주머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려있다. (이어폰 zoom in)

화면이 이어폰에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커진다. (이어폰에서 선우의 목소리)

이어폰 sound “선우 : 찿. 좋아. 이 형님이 시험만 끝나면,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같이 해준다!

창태 : 뭐..? 정말...?

선우 : 그래 임마~ 내가 그림은 잘 못그려도, 노는 건 존나게 잘 놀거든? ㅋㅋ 그래. 클럽!

너 클럽도 안 가봤지? (창태의 볼을 꼬집으

며) 아유~ 이 썩맥 요거요거~.

창태 : (손을 뿌리치며) 아!아! 아파~! 야 너 진짜 약속 지키는거다.

선우 : 알았어 짜식아.

창태 : ..선우야. 우리... 친구 맞지?

선우 : (어이없어 하며) 뭐? ㅋㅋㅋㅋ. 그래! 친구다 친구!! 둘도 없는 친구야! 됐냐?? 야 나간다!

창태 : 아! 응..

(INSERT) 선우가 내리고 눈치를 살피는 창태. 무언가 결심한 듯 지하철에서 내려, 선우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는 멀리 선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폰을 끼는 창태.

주문을 마친 창태. 멀리서 선우를 바라본다.

평소 문형과의 대화를 녹음 해놓은 창태.

(INSERT) 녹음을 준비하는 장면, 녹음이 되고 있는 장면들

(INSERT) 선우 : “이 씨발놈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떡살을 다시 꽂 잡으며) 어?? 뭐? 장난? 장난!!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뭐냐고. 게이야? 뭐야!!? 야.. 내가, 아니, 내가 너한테 뭐, 뭘 어떻게 해줄까? 응?? 뭐 어찌라고!!!!.이 씨발.... 너 나한테 한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내가 너 죽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창태를 밀치며) 하아.. 이 정신병자 같은 새끼. 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병신아...”

자신을 쳐다보는 창태를 보고, 웃음 짓는 선우.

END